

## 푸락마티즘의 生活觀(下)

美洲 로싼젤스 韓稚振

實驗主義의 가장 興味있고 中樞的인 思想은 그의 眞理觀에 잇스니 實로實驗主義는 一個眞理觀의 解說에 不外하다 評定하는 이까지 잇는 것이다. 在來에 眞理에 對한 態度와 가티 眞理는 一種 永久不變의 神秘的 絶對超人間的이라는 獨斷主義에서 멀리 썬나 眞理는 무엇이든지 直接 우리가 考察할 수 잇고 實驗證明할 수 잇고 消化할 수 잇는 것이니, 眞理는 恒常 進化變遷하야 자라며 잇다한다. 그리고 眞理의 標準은 實利主義와 如히 滿足人帶小數인에게 주는 滿足보다 多數人에게 多量의 滿足의 結果를 내이는 것으로 實驗主義의 眞理觀의 標準이 되여 잇다.

滿足한 結果- 이것은 實驗主義의 眞理觀의 骨子이다. 萬事의 價値判斷을 各各내 이는 結果를 보고 定하자 덩허노코 眞理는 조흔 結果를 産한다. -이러케 力說하는 것이 그의 主將이였다. 結果업는것은 아모것도 아니라한다. 그리고 滿足한 結果만이 眞理라고 해버린다. 例하면 참 善하다하는 小刀는 物을 切하는 目的에 適合한 實際的 結果를 내인다는 뜻이니 物을 切하는 結果如何에 依하야 小刀의 眞善을 判斷한다. 함이라 換言하면 小刀依線을 알려 거든 直接小刀로 物을 切하는 經驗을 해보라는 것이다. 곳 眞理를 實驗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實驗的 眞理觀에 對하야 生覺해들 몇가지 點이 잇스니 첫재는 極端의 個人主義가 濃厚한 것을 알수잇다. 그는 萬事의 標準 點은 오즉 實際로 證驗하야어든 滿足快樂이라 하엿스니 말하면 各個人이 萬事의 標準點이 된 셈이라 웨 그려냐 하면 各個人의 滿足은 各個人에 限하야 判異함으로써 이다. 나의 悅은 他人의 毒藥이 될 수 잇는 까답이다.

둘재는 享樂主義이니 무엇이든지 滿足한 結果만 産하고 보면 모다. 眞理라고 하는것이 되엿스니 昔日에 『에피쿠리엔』學派가 말한 人生의 最高目的은 享樂이라 함과 同一하다. 이에 對하야 『제임스』는 『永生에 對한 信仰』의

眞理與否를 舉論하되 『永生不滅을 우리가 實驗하여 確證은 못하나 그러나 永生을 미덥으로써 우리의 現生活에 滿足快樂을 만히 주니 이럼으로 그만치 永生說은 우리에게 眞理가 된다』하였다.

셋재로 아라들 것은 實驗主義는 『힘주의』이라 웨 그러나 하면 우리에게 『힘』이 잇서야 生活의 滿足을 어들 수 잇스니 가령 自然現象을 征服하여 生活의 事實을 돕게 하려 하면 그러케 할 힘이 잇서야 하지 아니 하겠는가? 生活은 自然과 其他 環境과 鬪爭하는 것을 뜻함이라 하는 것이다.

네재로 아라들 것은 차라리 批判할 것은 實驗主義가 그 眞理觀에잇서 善과 眞의 概念을 分別하여 使用치 못한 感이 업지 안타 선이라 할 데 眞이라고 해버리고 마렀다. 가령 現下京城水災를 救濟키 위하여 一計劃을 作하얏다하면 그 計劃을 實驗主義煮는 眞이라 할 것이나 實인즉 善이라 하여야 當然할 것이라 善은 價値를 말함이요, 眞은 實在를 說明하는데 그와 一致符合하고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實驗主義는 忘却한 듯하다.

스트로 實驗主義에는 相對主義觀念이 豊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眞理는 絶對的이 아니요, 相對的이며 永久不變이 아니요 時時各各으로 變化無常이다 하는 것이 그의 根本主張이다. 나의 眞理가 되지 못하며 過去의 眞理나 現在의 眞理나 將來의 眞理나가 가를 수 업다하자오. 우리의 生活條件 級內□이 無 變遷하는 까닭이다. 眞理는 우선 絶對的인 對象을 表示함도 아니요, 오즉 變化 그것이 眞理라 하면 眞理일 것이다. 이래서 한 사람의 고기는 다른 사람의 毒藥이 되는 것이요 고기는 永永 고기로만 또 毒藥은 毒藥 그대로 늘 잇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람에게 依하여 □時 一種의 臨時的 特性에서 不過한 것이다. 이 世上은 모다 不完全한 것이 그의 本性이다. 우리가 가지고 잇는 모든 思想 모든 制度는 不完全하기가 誤錯되기가 그의 特性이다. 우리가 只今말하는 神도 잇다하면 不完全有限일 것이다. 神과 人 其他 萬有할 것 업시 모다. 時間 空間을 싸라 變遷進化하여있다. 變遷進化가 何時나 完全에 至할가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업다. 또 알 必要도 업다. 우리가 알려 하든지 말든지 이 世界는 繼續變遷하는 것이 事實이다. -이것이 實驗主義의 相對性이다.

以上에 論한 實驗主義의 生活觀이 二十세기의 代表的 思想이 되게 한 그 原人은 그 根底를 生理學的 心理學的 學說에 둔 데 있다. 사람의 心理의 出現發達은 다른 生活記觀과 함씨다. 가티 生存慾의 力에 依하여 가져오게 되엿다. 하나니 가령 駱駝가 넓은 밭을 가지고 잇는 것은 沙漠에 生存한 까닭과 가티 사람이 가장 발달된 腦子를 所由케 됨도 우리의 生活意志가 우리의 環境을 征服하여 사려고 한 때문이라 한다.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生覺한다

하면 그 속에는 無意識的이나 肉의 活動의 依支가 含有하였고 그 肉體的 活動에 生存을 意味한 것이 事實이라 한다. 勿論 이러한 言은 十分의 九는 眞理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忘却해서 안될 것은 우리 사람이 사고하는 모든 動作이 오즉 生存만 目的한다고 首肯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무슨 眞理를 알아보기 위하여 苦心近思한다. 하면 그 苦心近思가 根本으로 生活目的을 位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眞理 그 自體만을 위한 것이 될 새도 만타함이다. 假令 舞臺의 始作으로 말하면 처음 그 舞의 始作의 動機 目的은 活潑한 氣分을 喚起하여 職場에 나가서 敵軍을 容接하자는 것이었스나 今日에 와서는 춤의 目的이든 勇職은 업서지고 춤 其 自體를 하기 위하여 舞臺케 되었스니 말하자면 一切의 動作은 生存目的만 僞하고 出演하지 아니하는 것이 分明하다.

아모터나 以上에 술한 實驗主義思想의 쭈렛이 드러나는 要點은 둘이니 하나는 現生에 對한 實踐的 台徒요 그 다음 하나는 將來主意이라 말하면 前者는 現在生活의 目標은 享樂으로 前定하고 其 實現冊으로 物質文明의 爲主하게 된 것이요 後者 卽 將來主義는 이 世上은 모다 不完全하고 變遷進化하는 것으로 前定하고 그림으로 無限한 將來가 前頭에 잇다함을 結論한 것이다. 世界의 完成은 사람의 意志活動에 依하여 決判한다는 것이다. 實로 이것은 西洋人의 生活事象의 根本主義가 되어 잇는 것이다. (끝)